조달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배포 즉시 (사진 14시 이후) 배포 2026. 11. 13.(금)

조달청, AI로 공공조달 혁신… 미래 조달행정 청사진 제시

- 13일 한국구매조달학회에서 AI 기반 조달행정 혁신 전략 발표
- AI 혁신제품 시범구매 확대·자체 AI 프로그램 24종 개발 등 추진 성과 공유

조달청(청장 백승보) 13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2026 한국구매조달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공조달 혁신 성과와 미래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AI 시대, 공공조달의 의사결정을 위한 제도와 실행'을 주제로 산·학·관 전문가들이 모여 AI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되어야 할 것인가를 중점 논의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공공조달의 AI 전환 현황과 추진 전략을 설명하며, 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조달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AI 전환과 조달행정 혁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올해 AI 분야 혁신제품 시범구매 금액이 193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내부적으로도 '인하우스 AI 개발 TF'를 구성해 입찰참가자격 분석, 국회 요구자료 관리 등 AI 에이전트 10종과 계약 통합관리, 공사 공종별 단가기준 비교·조회 등 업무 프로그램 14종을 자체 개발하고 실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에도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AI 소프트웨어와 피지컬 로봇 등 미래 전략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공공조달 AI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AI 기술의 도입과 활용은 공공조달 의사결정의 속도와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계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래 전략산업이 공공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신동헌 (042-724-7082)
		담당자	서기관	박선옥 (042-724-707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